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경 희\* · 배 성 우\*\*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

## Abstract

---

###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settlement of the increas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Even though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individual factors, social factors, cultural factors, and so on, previous studies tended to examine only a part of those factors. Under such circumstance, the level of correlation and interdependency among the above factors cannot be thoroughly understood in a comprehensive manner.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d and tested the correlation and interdependency among individu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comprehensively in an attempt to better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process.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ed multiple measures including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in order to examin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analyses revealed the following two major findings. First, depress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rate. These results may indicate that personal cognitive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are closely 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the presence of family member living together i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related only with life-satisfaction..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depression, life-satisfaction, self-esteem, cultural difference, family

---

\* 계명문화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I. 서론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현황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이전까지는 이들 입국자 수가 십 명 단위 수준에 머물렀으나 1999년 이후 백 명 단위 수준, 2002년 이후에는 천 명 단위 수준으로 증가하여 2004년 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처럼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정부는 2004년 7월 ‘보호’가 중심이었던 기존의 정책을 ‘자립·자활 기반 마련’을 강화하고, 또 중앙정부가 도맡아 온 정착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비정부기구가 함께 나눠 맡는 삼각 지원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등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이러한 용어에서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새터민’<sup>1</sup>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여 200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몇몇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북한’이나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TV프로그램도 증가<sup>2</sup>했으며,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남북경제협력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증대했으나, 이들은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중국체류 중의 불안감, 잔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 정서적 문제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질병, 정신적 질환, 심리적 문제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 언어문제로 겪는 곤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의 어려움, 문화적 충격 즉, 가치관 및 도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달라 받게 되는 혼란, 돈에 대한 가치인식의 미정립으로 인한 혼란, 국가

<sup>1</sup>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새터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새터민’은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목적으로 선택한 이름이지만, 새터민 또한 낯설고, 일반 국민들에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以下)에서는 이들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자 한다.

<sup>2</sup>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남북의 창’, ‘통일전망대’, ‘남북은 하나’, ‘TV 속 북한, 북한 속 TV’, ‘북한리포트-서울에서 평양까지’ 등과 같이 KBS, MBC, EBS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들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또는 기관의존적인 소극성 등이다. 또 구직 시 겪는 어려움,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 냉정함, 경멸로부터의 어려움, 전문지식의 결여로 인한 지적 열등감, 사회적 지위가 북한에 있을 때보다 하락했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sup>3</sup>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문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심리·사회적 적응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및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이해 향상, 지역사회 통합, 그리고 앞으로의 통일준비 등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 또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일부영역과의 관계만을 파악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전반적인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요인과의 관계만을 파악함으로 인해, 이들 요인들이 지니는 상호 연관성의 파악,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있어서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등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심리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설정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의 다양한 영역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및 적응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각각은 북한이탈주

<sup>3</sup>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영수,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제9호 (2000), pp. 102~11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1997); 이기영,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99), pp. 161~176.

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인가?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정착의 개념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정착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적응 또는 정착을 중심개념으로 설정하여 왔다. 먼저 ‘적응’의 경우 이기영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의 제반 사회환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영위하며, 심리적으로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sup>4</sup> 윤인진은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하였다.<sup>5</sup> 반면, 박하진의 경우, ‘인간이 자연환경과 사회적 조건에 알맞게 그 습성이나 생활방식이 변함’이라는 의미의 ‘적응’과, ‘일정한 곳에 자리잡아 삶’을 의미하는 ‘정착’ 중 ‘정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sup>6</sup> 북한이탈주민은 완전히 달라진 사회적 조건 아래 남한사회의 규범과 가치, 행동양식을 배워가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응’의 의미를 가지고, 이들을 단지 새로운 환경을 맞아 적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북한주민’으로서 매개체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정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이민이나 난민관련

<sup>4</sup> 이기영, “북한출신 남한주민의 사회적응 척도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p. 128.

<sup>5</sup>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한국사회문화연구원 공개토론회』 (2000), p. 2.

<sup>6</sup> 박하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pp. 27~28.

연구를 고찰하고 이를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관련해서 연구해 왔다. 먼저 이민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문화적응개념을 도입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Berry나 Gordon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sup>7</sup> Berry 등은 이민자들이 문화적응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 이는 본국사회의 특성(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정도), 문화적응집단의 본성(이민의 자발성, 접촉의 지속성 등)과 두 가지 주요문제에 따른 문화적응형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 두 가지 문제란 이민자 집단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본국사회에 대한 접촉과 참여정도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ethnic group, native people, immigrants, refugees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sup>8</sup> 한편, Gordon은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새로운 사회와의 경쟁을 포기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닮아가는 행동적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와 종족 간의 결혼 등의 방법으로 새로 살게 되는 사회로 뚫고 들어가는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로 구분하였다. 그는 동화를 문화적 동화, 구조적 동화, 결혼동화, 정체성 동화, 태도 수용적 동화, 행위 수용적 동화, 시민적 동화 등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sup>9</sup> 이렇듯 문화적응은 한 집단이 새로운 거대사회를 만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현상으로 이는 집단의 특수성이나 개인적 특징, 그리고 거대사회에서의 수용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반면 난민은 이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난민<sup>10</sup>은 대개 박해, 정치적 폭력, 사회 내부적 혼란, 생태적 재해 혹은 빈곤 등과 같은 동기를 불문하고 난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난민은 탈출동기를 고려하여 대

<sup>7</sup> 윤인진, “탈북 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1999), pp. 1~38;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sup>8</sup> Berry J. W., Uichol Kim, Thomas Mind, Doris Mok,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21, No. 3 (1987), pp. 491~511.

<sup>9</sup> Gordon, M. M.,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The Role of Race, Religion, and National origin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p. 71;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12~13 재인용.

<sup>10</sup> UN의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국자로서,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혹은 개인적인 사정 이외의 이유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강권찬, “기회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10호 (2003).

체로 정치적 난민,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sup>11</sup> 이기영·엄태완은 이런 난민의 개념을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해 탈출 과정에서 심리정신적 경험과 정착지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 등은 난민과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난민들은 이주과정에서 고문, 강요된 잔학행위, 죽음 목격, 가족구성원의 상실, 박해, 강간과 성폭행, 기아, 고국에서의 위험한 탈출 등의 외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이 실제 정착과정에서는 고용, 사회적 지지, 생존자로서의 죄책감, 문화변용,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고 보았다.<sup>12</sup>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은 보다 복잡하고 특수한 성격을 갖는다. 즉 단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화적응이나 난민들의 정착과정과는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난민은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자국을 떠난 특징을 갖고, 이민의 경우 자의적 의사와 목표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아직 국제사회에서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민자들과도 차이가 있다. 둘째,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 고향 귀환 가능성에 대해 향수심과 좌절감, 통일에 대한 기대감 등이 중 감정을 가지게 된다. 셋째, 이들이 정착해서 같이 생활해야 할 남한 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동정심과 호기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의 뒤섞인 감정으로 대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은 동독주민들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동독과 북한은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볼 때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 또 동독민은 탈출이유가 정치적 자유가 많았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근까지 경제적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섯째, 서독은 동독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화합을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했지만, 남한의 경우 사회적 화합보다는 과거 정치체제의 우월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탈북자들을 영웅시하기도 했다. 상술한 이유들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자 또는 이민자들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적응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에

<sup>11</sup> 강권찬, “기획망명후의 탈북자문제 해결방안,” 『민족연구』, 10호 (2003), p. 176.

<sup>12</sup> Chung, R. C. -Y. & Bemak, F., “Revisiting the California Southeast Asian Mental Health Needs Assessment Data : An Examination of Refugee Ethnic and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80 (2002), pp. 11~119; Chung, R. C. -Y., “Psychosocial Adjustment of Cambodian Refugee Women : Implication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Vol. 23 (2001), pp. 115~126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6권 (2003), pp. 10~11. 재인용.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 2. 선행연구의 고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련된 연구는 연간 입국자가 처음으로 두자리 숫자를 기록한 1994년부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수의 표본을 통해 이들의 정착실태를 중심으로 연구<sup>13</sup>되었다. 또한 구체적인 정착과정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적 제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sup>14</sup> 남한사회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연간 100명 이상인 2000년 이후에는 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적응이란 개념을 측정함에 있어서 우울,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경제적 만족도 등으로 조작화하고,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등이 검토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정착기간, 자존감, 대인관계 등이 고려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었던 개인적 요인 중, 성별은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up>15</sup> 연령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또한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요인을 중요하게 설정하고 있으며,<sup>17</sup> 거주기간은 이들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거주기간

<sup>13</sup> 오혜정,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종철·김영운·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 36, No. 1 (1997).

<sup>14</sup> 한만길, “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문제와 재사회화 방안,” 『통일논총』, 제5권 2호 (1996); 이장호, “북한출신 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북한』, 311호 (1997); 윤인진, “탈북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지원대책,” 『한국사회학회 신진교수과제』 (1999); 강구섭, “북한이탈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모형개발,” 『민족발전연구』, 제3호 (1999).

<sup>15</sup>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Vol. 11 (2001), pp. 88~89;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p. 57~58.

<sup>16</sup>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66~68;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p. 88~89;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pp. 17~18.

<sup>17</sup>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p. 48~50;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p. 87~88;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8호 (2004), pp. 17~19.

이 길수록 우울이나 무망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다는 결과<sup>18</sup>와, 기간이 길수록 심리문화적 적응도가 높다<sup>19</sup>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독고순은 거주기간이 1년 이하에서 가장 높은 적응 평가를 나타내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다가, 3년~5년까지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sup>20</sup>

한편, 최윤정 등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을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sup>21</sup> Felix Neto의 이민자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사회적응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2</sup> Wills(1985)는 난민들이 가지는 대인관계는 심리적으로 많은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즉, 난민들이 가지는 사회적 친교활동은 이들의 자존심을 유지·강화시켜주고, 자신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23</sup> 유시연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 그리움,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느끼게 되어 부적응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24</sup>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선행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정착기간, 동거가족여부, 자존감, 대인관계를 개인적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가장 우선적인 욕구로 꼽히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sup>25</sup>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sup>18</sup>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pp. 19~20;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1.

<sup>19</sup>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p. 63~64.

<sup>20</sup> 독고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연구』, p. 118.

<sup>21</sup> 최윤정·권현진·이시연,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3호(2004), p. 534.

<sup>22</sup> Felix Neto, “Social Adaptation Difficulties of Adolesc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0, No. 4 (2002), p. 341.

<sup>23</sup> Wills, T. A., “Supportive Function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hen, S. and Symee, S. L.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Orlando* (Florida, Academic press, Inc, 1985);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p. 87.

<sup>24</sup>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3.

<sup>25</sup> 김경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79;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북한이주민지원센터 사업보고서)』(2004), p. 12.

소득획득 수단으로서 생활력의 지표일 뿐 아니라 직장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정도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이며,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람의 편견, 자격 문제, 취업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Wallin과 Ahlström은 혼자 거주하는 청소년난민을 대상으로 생활만족을 연구한 논문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생활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sup>27</sup> Werner도 적응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인임을 말하고 있다.<sup>28</sup> 엄태완 등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윤인진<sup>29</sup>은 북한이탈주민을 관리·지원하고 있는 후원자의 지원정도가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up>30</sup> 이소래의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 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sup> 전우택 등도 사회연계체제의 빈약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sup>3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취업여부, 사회적 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진다. 이들은 남한사회의 생활방식에 대해 나름대로의 편향적 인식을 하거나, 성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 화이트칼라만 대우받는 사회, 모든 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등 그들의 이분론적 사고방식에 의거하여 남한사회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왜곡된 선입견은 남한적응에 역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언어 및 외래어 사용에 익

<sup>26</sup>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p. 49.

<sup>27</sup> Wallin A-M, M. and Gerd I. Ahlström, “Unaccompanied Young Adult Refugees in Sweden, Experience of their Life Situation and Well-being: A Qualitative Follow-up Study,” *Ethnicity and Health*, Vol. 10, No. 2 (2005), pp. 129~144.

<sup>28</sup> Werner, E. E.,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y on Alcohol*, Vol. 47, No.1 (1986), pp. 34~40; 최윤정·권현진·이시연, “빈곤 청소년의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p. 534 재인용.

<sup>29</sup> 윤인진, “탈북자와 남한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sup>30</sup>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2.

<sup>31</sup>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p. 68.

<sup>32</sup> 전우택·민성길·이만홍, 이은설, “북한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p. 147.

숙하지 못함이 초기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며, 컴퓨터 등에 관한 지식이 부재하여 직장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가진다.<sup>33</sup> 이와 같이 문화차이로 인해 적응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로, Dung(1984)은 베트남 사람들의 미국생활 정착에서 두 문화 사이에 대한 차이인식이 이들의 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Tobin · Friedman(1983)은 난민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문화적 측면에 예민해야 한다고 보았다.<sup>34</sup> Uzi Ben Shalom과 Gabriel Horenczyk는 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적응관계는 복잡하며, 이들의 적응에 있어서 두 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이 이민자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 보았다.<sup>35</sup> 즉, 자국의 정체성 포기 없이 이민국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으로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 정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연구내용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이들의 부적응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최근 들어 Seligman과 Csikszentmihalyi 등은 긍정적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의 관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으로서 생활만족도, 희망, 행복감, 낙관성 등을 주로 다루는데,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진다면 삶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6</sup> Marta Y. Young과 David R. Evans도 난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등을 적응의 척도로 활용했는데, 초기 이민에 대한 연구는 부정적 결과에 치중해 있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적응을 연구

<sup>33</sup> 이기영, “남한거주 탈북자의 정착과 사회적응 지원방안,” 『통일논총』, 제18호 (2000), p. 40.

<sup>34</sup> Dung, T. N., “Understanding Asian Families: A Vietnamese Perspective,” *Children Today*, Vol. 13 (1984), pp. 10~12; Tobin, J. J. & Friedman, J., “Spirit, Shamans and Nightmare Death: Survivor Stress in a Hmong Refugee,”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3 (1983), pp. 439~448;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남·북한 사람들의 통일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고찰』, p. 50.

<sup>35</sup> Uzi Ben Shalom, Gabriel Horenczyk, “Cultural identity and adaptation in an assimilative sett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28 (2004), p. 462.

<sup>36</sup> Seligman, M. E. P. & M. Csikszentmihalyi,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 5~14;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p. 3 재인용.

하고 있다고 보았다.<sup>37</sup> 이렇게 볼 때 기존의 부적응 연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적응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적극 고려하는 연구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한계점은 정착에 대한 측정지표와 관련된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단일영역의 측정에 머무르고 있다<sup>38</sup>는 한계를 가진다. 심리적 문화적응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 지표(single index) 사용과 다중 지표(multiple index) 사용주장이 대립해 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신건강과 같은 영역에서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전의 양면과 같지는 않다고 알려져 왔다. 즉, 정신건강의 어느 한 측면을 측정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른 한 측면을 측정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영역의 측정보다는 다중영역의 측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각각 연구된 적은 있었지만,<sup>39</sup> 이들 세 가지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하나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의 요인이 다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에 있어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 걸친 다양한 영역의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긍정적 심리학적 관점과 다중지표를 활용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개인적 요인(정

<sup>37</sup> Marta Y. Young & David R. Evans, "The Well-being of Salvador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32, No. 5 (1997), pp. 289~300.

<sup>38</sup> 김진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이소래,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sup>39</sup>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유시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채정민·김종남, "북한이탈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적응: 개인적 정체감과 사회적 정체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8권 1호 (2004); 이태희,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18호 (2004).

착기간, 동거가족여부, 자존감, 대인관계), 사회적 요인(취업여부, 사회적 지지), 문화적 요인(남북한 문화 차이인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행연구와 대별되는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은 궁극적으로 현재 생활에서 느끼는 사회·심리적 안정감 및 심리적 안녕감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크게 긍정적 부분으로서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과 부정적 부분으로서 우울(depression)을 대표적인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sup>40</sup> 즉, 생활만족과 우울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생활에서 갖는 안정감을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으로 긍정적인 면은 생활만족도를, 부정적인 면은 우울감을 선정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구지역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수도권 이외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특징을 조사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구지역은 수도권 이외 부산과 대전 다음으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sup>41</sup>하고 있어, 이들의 정착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그 특성상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는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 혹은 전문가의 협조 없이는 접촉이 현실상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부산 등 기타 지역을 포괄하여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타 지역에 위치한 단체 혹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구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단체(북한이주민지원센터)만이 협조가 가능하였기에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sup>40</sup> 김오남,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모자녀 갈등, 대처와 심리적 안녕,”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3권 4호 (2004), p. 2.

<sup>41</sup> 이경희,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모델 개발,” 『사회복지연구』, 제6권 1호 (2005), p.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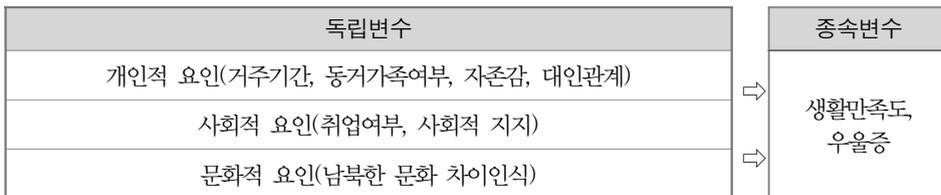
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2005년 3월 현재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총 227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277명 중 171명은 타 지역에서 일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접촉이 불가능하였다. 협조기관의 도움으로 조사당시에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106명의 조사대상자는 모두 설문에 참여하였다.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부를 제외하고 10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방법은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직원 4명과 대학원생 9명이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또는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을 취했다.

##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각각이 이들의 생활거주지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또 이들 각 요인들이 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1> 연구모형



## 3. 측정도구

### 가. 독립변수

####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거주기간, 동거가족여부와 자존감, 대인관계를 측정하였다.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단일문항(동거가족의 존재여부)으로 조사하였고,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RSE(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63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는 Sc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우리 실정에 맞게 문선모가 번안한 척도<sup>42</sup>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내용은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북한이탈주민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어 의사소통, 신뢰감, 개방성의 영역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66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은 현재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단일문항을 사용하였고(취업여부), 사회적 지지척도는 Tracy, E. M.과 Whittaker, J. K.가 개발한 'The Social Network Map'을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sup>43</sup> 척도의 구성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및 유형의 구조적 측면과 물질적 원조, 정서적인 원조, 정보에 대한 원조 등 기능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9로 나타났다.

### (3) 문화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 제도적 차이, 경제체제의 차이, 경제적 생활수준 차이, 각종 사회제도의 차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언어의 차이, 생활습관의 차이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된 척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은 것을 의미하며,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5로 나타났다.

<sup>42</sup> Schlein and Guerney, "Relationship Change Scale" (1971); 문선모,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경상대 논문집』, 제19권 (1980), pp. 195~204.

<sup>43</sup> Tracy, E. M. & Whittaker, J.K., "The Social Network Map: Assessing Social Support in Clinical Practice," *Family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Vol. 71, No. 8 (1990), pp. 461~470.

## 나. 종속변수

종속변수로는 생활만족과 우울을 측정하였다. 생활만족은 양옥경의 삶의 만족척도를 사용하였는데,<sup>44</sup> 이 척도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삶의 철학에 이르는 추상적인 것 등 삶의 만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척도의 내용은 의식주 영역, 친구관계 영역, 가족 및 친척관계 영역, 신체 및 정신건강 영역, 일(직업) 영역, 경제 영역, 대인관계 영역, 사회생활 및 여가활동 영역, 행복감 영역, 자율성 및 자아감 영역 등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4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의 문제, 신체적 증상과 행동저해 등 4가지 영역에 대해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 .88로 나타났다.

##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WIN 12.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및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64명, 61.5%)가 남자(40명, 38.5%)보다 좀 더 많았으며,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 $t=-.64$ ,  $p>.05$ )이나 우울( $t=-.20$ ,  $p>.05$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는 10대~60대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나 20대~3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른 생활만

<sup>44</sup> 양옥경, “삶의 만족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사회복지학』, 제24호 (1994).

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F=3.66$ ,  $p<.05$ ), 특히 20대( $Mean=46.79$ )와 30대( $Mean=45.72$ )가 60대 이상 연령층( $Mean=57.00$ )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에 따른 우울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생활만족( $F=3.00$ ,  $p<.05$ )과 우울( $F=3.35$ ,  $p<.05$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소학교졸업 이하 집단( $Mean=53.50$ )이 대학 이상 집단( $Mean=44.00$ )보다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 집단( $Mean=24.19$ )이 소학교졸업 이하 집단( $Mean=13.57$ )이나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집단( $Mean=15.89$ )보다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에 따른 생활만족과 우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생활만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우울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2.03$ ,  $p<.05$ ). 즉,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Mean=19.42$ )이 취업을 한 사람( $Mean=15.11$ )보다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거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북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형태에 따라 생활만족( $F=4.01$ ,  $p<.05$ )과 우울( $F=4.46$ ,  $p<.05$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북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집단( $Mean=53.45$ )이 혼자 사는 집단( $Mean=46.20$ )보다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혼자 사는 집단( $Mean=20.36$ )과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사는 집단( $Mean=22.91$ )이 북한에서 함께 온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집단( $Mean=13.00$ )보다 우울증이 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2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거주자, 3년 미만 거주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기간에 따라 생활만족( $F=1.41$ ,  $p>.05$ )이나 우울( $F=1.04$ ,  $p>.05$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t;표 2&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평균값

| 구 분      |             | 빈도(%)    | 생활만족<br>(Mean/SD) | t/F               | 우울<br>(Mean/SD) | t/F                |
|----------|-------------|----------|-------------------|-------------------|-----------------|--------------------|
| 성별       | 남           | 40(38.5) | 48.53(9.79)       | t=-.64<br>p=.523  | 17.25(9.54)     | t=-.20<br>p=.843   |
|          | 여           | 64(61.5) | 49.86(10.30)      |                   | 17.70(12.08)    |                    |
| 연령       | 10대         | 7(6.7)   | 54.86(7.95)       | F=3.66*<br>p=.005 | 16.14(9.77)     | F=2.13<br>p=.068   |
|          | 20대         | 30(28.8) | 46.79(7.67)       |                   | 20.13(8.96)     |                    |
|          | 30대         | 32(30.8) | 45.72(10.24)      |                   | 20.23(13.64)    |                    |
|          | 40대         | 20(19.2) | 52.79(10.42)      |                   | 14.50(10.98)    |                    |
|          | 50대         | 5(4.8)   | 51.00(12.65)      |                   | 8.60(7.70)      |                    |
|          | 60대 이상      | 10(9.6)  | 57.00(8.88)       |                   | 12.80(6.13)     |                    |
| 학력       | 소학교 졸업 이하   | 14(13.7) | 53.50(9.30)       | F=3.00*<br>p=.035 | 13.57(6.96)     | F=3.35*<br>p=.022  |
|          | 고등중학교 중퇴    | 15(14.7) | 52.43(6.48)       |                   | 19.27(9.59)     |                    |
|          | 고등중학교 졸업    | 56(54.9) | 49.22(10.21)      |                   | 15.89(10.49)    |                    |
|          | 대학 재학 또는 중퇴 | 11(10.8) | 40.09(8.19)       |                   | 28.00(13.27)    |                    |
|          | 대학 졸업       | 5(4.9)   | 50.00(13.45)      |                   | 15.80(12.11)    |                    |
|          | 대학원 이상      | 1(1.0)   | 57.00             |                   | -               |                    |
| 취업<br>여부 | 취업          | 46(44.7) | 50.76(9.41)       | t=1.17<br>p=.244  | 15.11(9.24)     | t=-2.03*<br>p=.045 |
|          | 미취업         | 57(55.3) | 48.38(10.58)      |                   | 19.42(12.23)    |                    |
|          | 혼자 산다       | 48(46.6) | 46.20(10.44)      |                   | 20.36(11.95)    |                    |
| 동거<br>형태 | 북에서 함께온 가족  | 38(36.9) | 53.45(8.31)       | F=4.01*<br>p=.010 | 13.00(7.85)     | F=4.46*<br>p=.006  |
|          | 남한에서 결혼한 가족 | 5(4.9)   | 48.00(12.79)      |                   | 14.40(12.86)    |                    |
|          | 다른 북한이탈주민   | 11(10.7) | 47.70(9.58)       |                   | 22.91(12.40)    |                    |
|          | 친척          | 1(1.0)   | 58.00             |                   | 17.00           |                    |
| 거주<br>기간 | 1년 미만       | 29(29.3) | 51.52(8.87)       | F=1.41<br>p=.244  | 16.00(8.40)     | F=1.04<br>p=.379   |
|          | 1년~2년 미만    | 38(38.4) | 46.58(10.71)      |                   | 20.19(12.79)    |                    |
|          | 2년~3년 미만    | 25(25.3) | 49.58(9.54)       |                   | 16.96(11.39)    |                    |
|          | 3년 이상       | 7(7.1)   | 50.86(12.13)      |                   | 14.57(12.50)    |                    |

\*p&lt;.05

## 2.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과 종속변수와의 관계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우울과 생활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울은 자존감( $r=-.32$ ,  $p=.001$ ), 동거가족여부( $r=-.23$ ,  $p=.019$ ), 문화차이인식( $r=-.35$ ,  $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생활만족은 대인관계( $r=.20$ ,  $p=.046$ ), 동거가족여부( $r=.29$ ,  $p=.004$ ), 문화차이인식( $r=.20$ ,  $p=.043$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 각 독립변수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존감과 대인관계( $r=.27$ ,  $p=.0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독립변수로 선정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은 각각의 요인 상호간에는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로 설정한 우울과 생활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60$ ,  $p=.001$ ).

<표 3>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및 우울과 생활만족과의 상관관계

| 구분         | 자존감   | 동거가족<br>여부 | 취업<br>여부 | 대인<br>관계 | 사회적<br>지지 | 문화<br>차이<br>인식 | 거주<br>기간 | 우울    | 생활<br>만족 |
|------------|-------|------------|----------|----------|-----------|----------------|----------|-------|----------|
| 자존감        | -     |            |          |          |           |                |          |       |          |
| 동거가족<br>여부 | -.03  | -          |          |          |           |                |          |       |          |
| 취업여부       | .03   | .13        | -        |          |           |                |          |       |          |
| 대인관계       | .27*  | -.11       | .06      | -        |           |                |          |       |          |
| 사회적<br>지지  | -.03  | -.02       | .07      | -.01     | -         |                |          |       |          |
| 문화<br>차이인식 | .12   | .03        | -.03     | .09      | .09       | -              |          |       |          |
| 거주기간       | -.00  | .16        | .03      | .08      | -.02      | -.13           | -        |       |          |
| 우울         | -.32* | -.23*      | -.19     | -.14     | .01       | -.35*          | -.02     | -     |          |
| 생활만족       | .16   | .29*       | .12      | .20*     | -.11      | .20*           | .01      | -.60* | -        |

\* $p<.05$

### 3.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906$ ,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족과의 동거여부( $\beta=-.259$ ,  $t=-2.680$ ,  $p<.05$ )와 자존감( $\beta=-.299$ ,  $t=-3.056$ ,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자존감이 낮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개인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56.736 | 10.688 |         | 5.308  | .000  |
| 거주기간  | .034   | .094   | .034    | .356   | .723  |
| 동거가족여부  | -5.804 | 2.166  | -.259   | -2.680 | .009* |
| 자존감   | -.943  | .309   | -.299   | -3.056 | .003* |
| 대인관계  | -.176  | .179   | -.097   | -.983  | .328  |
| R=.417 R <sup>2</sup> =.174 (수정된 R <sup>2</sup> =.139) F=4.906* |        |        |         |        |       |

\* $p<.05$

####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77$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lt;표 5&gt; 사회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17.307 | 2.268 |         | 7.630 | .000 |
| 취업여부                                 | -2.629 | 2.702 | -.103   | -.973 | .333 |
| 사회적 지지                               | .011   | .144  | .008    | .077  | .938 |
| R=.104 R2=.011 (수정된 R2=-.012) F=.477 |        |       |         |       |      |

#### 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13.396$ ,  $p=.04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t;표 6&gt;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29.528 | 3.446 |         | 8.568  | .000  |
| 문화차이인식                                 | -.554  | .151  | -.345   | -3.660 | .000* |
| R=.345 R2=.119 (수정된 R2=.110) F=13.396* |        |       |         |        |       |

\* $p<.05$ 

#### 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800$ ,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3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2=.31$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

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 $\beta=-.365$ ,  $t=-3.662$ ,  $p<.05$ )과 문화차이인식( $\beta=-.347$ ,  $t=-3.482$ ,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7>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60.894 | 11.217 |         | 5.429  | .000  |
| 거주기간  | -.054  | .092   | -.057   | -.580  | .564  |
| 동거가족여부  | -2.862 | 2.223  | -.130   | -1.287 | .202  |
| 자존감   | -1.142 | .312   | -.365   | -3.662 | .000* |
| 대인관계  | .111   | .190   | .060    | .585   | .560  |
| 취업여부  | -.604  | 2.487  | -.024   | -.243  | .809  |
| 사회적 지지  | .090   | .136   | .065    | .666   | .507  |
| 문화차이인식  | -.553  | .159   | -.347   | -3.482 | .001* |
| R=.554 R <sup>2</sup> =.307 (수정된 R <sup>2</sup> =.243) F=4.800* |        |        |         |        |       |

\* $p<.05$

#### 4.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3.961$ ,  $p=.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동거가족여부( $\beta=.292$ ,  $p<.05$ )와 대인관계( $\beta=.207$ ,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거하는 가족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t;표 8&gt; 개인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19.597 | 9.989 |         | 1.962 | .053  |
| 거주기간  | -.045  | .088  | -.050   | -.506 | .614  |
| 동거가족여부  | 5.882  | 1.978 | .292    | 2.974 | .004* |
| 자존감   | .409   | .283  | .144    | 1.443 | .152  |
| 대인관계  | .345   | .169  | .207    | 2.046 | .044* |
| R=.385 R <sup>2</sup> =.148 (수정된 R <sup>2</sup> =.111) F=3.961* |        |       |         |       |       |

\*p&lt;.05

#### 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921$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lt;표 9&gt; 사회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50.780 | 2.095 |         | 24.244 | .000 |
| 취업여부   | 2.250  | 2.437 | .099    | .923   | .358 |
| 사회적 지지   | -.126  | .131  | -.103   | -.964  | .338 |
| R=.145 R <sup>2</sup> =.021 (수정된 R <sup>2</sup> =-.002) F=.921 |        |       |         |        |      |

#### 다.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F=4.188$ ,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남북한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t;표 10&gt;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42.839 | 3.325 |         | 12.884 | .000  |
| 문화차이인식                                | .300   | .147  | .202    | 2.046  | .043* |
| R=.202 R2=.041 (수정된 R2=.031) F=4.188* |        |       |         |        |       |

\*p&lt;.05

### 라.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  $F=2.503$ ,  $p=.02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중 동거가족여부( $\beta=.223$ ,  $t=2.042$ ,  $p<.05$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생활만족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개인적 요인 중 동거가족여부만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11&gt;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 구분                                    | B      | 표준오차   | $\beta$ | t      | p     |
|---------------------------------------|--------|--------|---------|--------|-------|
| (상수)                                  | 16.971 | 11.405 |         | 1.488  | .141  |
| 거주기간                                  | -.015  | .093   | -.017   | -.159  | .874  |
| 동거가족여부                                | 4.500  | 2.204  | .223    | 2.042  | .045* |
| 자존감                                   | .539   | .313   | .186    | 1.723  | .089  |
| 대인관계                                  | .237   | .191   | .136    | 1.238  | .219  |
| 취업여부                                  | 1.196  | 2.437  | .052    | .491   | .625  |
| 사회적 지지                                | -.173  | .135   | -.136   | -1.277 | .205  |
| 문화차이인식                                | .258   | .160   | .175    | 1.613  | .111  |
| R=.435 R2=.189 (수정된 R2=.114) F=2.503* |        |        |         |        |       |

\*p&lt;.05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남한사회정착에 대한 측정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생활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동거가족여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에서 혼자 살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요인으로는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에 따른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남북한 문화에 대한 차이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높을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개별요인별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단위 이주자일수록 우울성향이 높다는 한인영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sup>45</sup> 이와 같은 차이는 한인영의 연구에서는 남한 입국시 이주형태를 고려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라 볼 수 있다. 또 자기의식(self-consciousness)이 우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채정민<sup>46</sup>의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요인과의 관계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sup>47</sup>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일영역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의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 $\beta=-.365$ ,  $t=-3.662$ ,  $p<.05$ )과 문화차이인식( $\beta=-.347$ ,  $t=-3.482$ ,  $p<.05$ )이 우울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sup>45</sup>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 87~88.

<sup>46</sup>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sup>47</sup> 이기영·엄태완,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클수록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문화에 대한 차이 인식과 같이 개인의 인지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남한생활적응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동거가족여부와 대인관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가족이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남한사회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취업여부와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태희, 손문경의 연구결과<sup>48</sup>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문화적 요인의 경우 남북한 문화차이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한 문화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적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각된 문화이질감이 생활만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채정민<sup>49</sup>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동거가족여부( $\beta=.223$ ,  $t=2.042$ ,  $p<.05$ )가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요인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했을 때는 동거가족여부, 대인관계, 문화차이인식이 각각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동시에 분석하였을 때에는 남한에서 동거가족이 있는가에 대한 요인만이 유일하게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사회에서의 삶의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동거가족이 있는 편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및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우울과 같은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남북한

<sup>48</sup> 이태희,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사회적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p. 34; 손문경,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p. 64.

<sup>49</sup> 채정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형태』.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 자이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나 남한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을 조사한 선행연구 중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비교해 보면, 부산·경남과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엄태완·이기영<sup>50</sup>의 연구에서는 CES-D의 평균점수가 25.34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하나원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인영<sup>51</sup>의 연구에서는 CES-D의 평균점수가 16.77로 나타났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균 17.52로 나타났다. 또한 엄태완·이기영<sup>52</sup>의 연구결과에서는 정착기간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착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성향은 거주지나 기간에 따라 동일한 양상을 띠는다고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민간·공공기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우울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때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적응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중 동거가족 여부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요인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단지 부적응요인을 밝히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주요변수로 간주되는 경제적 부분의 연구결과가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여부는 이들의 우울이나 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전연구(pilot study)의<sup>53</sup>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82명) 중 현재 취업 중(23.5%)이거나 이전에 취업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44.4%)들 중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임시직이거나 일

<sup>50</sup>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16.

<sup>51</sup> 한인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p. 86.

<sup>52</sup> 엄태완·이기영,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p. 21.

<sup>53</sup> 북한이주민지원센터, “2004년 대구지역 북한이주민 정착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통일문제연구』, 제25~26집 (2003~2004), pp. 243~244.

용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직장 경력은 3개월 이하가 55.6%, 6개월 이하가 27.8%, 1년 이하가 16.7%로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짧은 직장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며,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여 이직이 잦고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낮은 고용상 지위에 머무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응답자의 95.5%가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 생계비 포함)의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경제적·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적 요인보다는 동거하는 가족의 지지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동거가족이 남한 사람이든 북한사람이든 혼자 생활하기보다는 가족단위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동거가족 지원프로그램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단지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즉, 이들의 적응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상이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는 이들의 적응 및 부적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부적응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다양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경우와 이들 요인들을 동시에 분석했을 경우의 결과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 등에 걸친 다양한 변인들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조사한 결과로서 전국적인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전체 지역을 포괄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지역별 비교연구까지도 가능할 것이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정착지원기관 및 서비스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 및 시스템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연구는 지역별 지원시스템의 정비 및 대안제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의 요인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이들의 적응에 관한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 시 현장에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 접수: 8월 31일 / ■ 심사: 11월 23일 / ■ 채택: 12월 8일